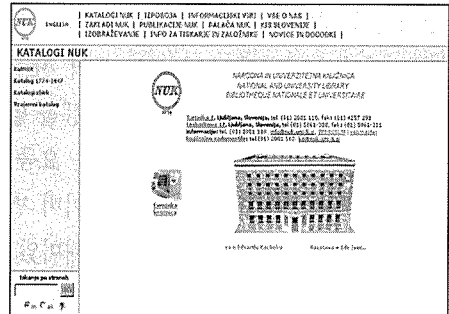


“ 슬로베니아 국립&대학도서관



〈출처 : <http://www.nuk.uni-lj.si/vstop.cgi?jezik=slo>〉



류현숙*

슬로베니아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응?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란 나라가 있어? 어디에? 라고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틈새에 끼여있듯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나라인데다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아 한국에선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였으며, 국토 면적은 약 2만 평방킬로미터로 인천과 경기도를 합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로 자연이 잘 보호되어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인구는 2백만 정도이며, 수도는 류블라나로 1인당 GDP는 11,200불(2003년 통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슬로베니아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손 안에 꼽을 정도이다.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은 류블라나 중심가에 있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국립대학도서관 Narodna in Univerzitetna Knjižnica(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이하 NUK)이다. 영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임과 동시에 대학 도서관이기도 하다. 국립대학 도서관이 아니라 국립 & 대학도서관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NUK건물은 건축가 Joze Plecnik(1872-1957)¹⁾의 설계로 1936년에 착공하여 1940년에 완공되었으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개축과 증

*Assistant, Asia & Africa Studies, Arts of Faculty, Ljubljana University
Hyeonsook-ryu@guest.arnes.si

1) <http://www.ijs.si/slo/ljubljana/plecnik.html>


축이 이루어졌다. 개축과 증축의 모토는 기간시설과 인테리어의 현대화, 참신한 외관, 문화 유산인 아치형 천장 구조, 안전 네트워크 설치, 내진(耐震)과 재해대비 장치를 갖추는 것이었다. 개축과 증축으로 컴퓨터실, 신문 열람실, 장애우를 위한 리프트, 이용자 승강기, 카페테리아, 화장실과 소지품 보관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슬로베니아 500tolar 지폐의 앞면은 Joze Plecnik가 뒷면은 NUK 건물이 실려있다.

NUK는 1774년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女帝)의 왕명으로 설립되었으며, 1850년에는 학술과 연구를 지원하는 참고도서관(Main Reference Library)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주참고도서관(State Reference Library)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유고슬라비아의 납본도서관 기능도 하게 되었다. 그 후 1919년 류블라나에 첫 대학이 탄생하면서 대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식으로 슬로베니아 국립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아 국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학술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명칭도 국립대학도서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1991년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후 연방 체제 하에서의 국립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독립국으로서의 국가대표도서관 기능 예를 들면 국가서지통정 기관, 정부출판물 센터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임무가 더해지게 되었다.

2003년 유럽 연합 법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은 교육부 소속에서 문화부 소속으로 조직구조와 행정체제가 바뀌었다. NUK 도서관장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그 밑에 도서관 프로그램 담당, 류블라나 대학도서관 시스템 담당, 그리고 재정과 총무를 담당하는 3명의 부관장을 두고 있다. 또한 도서관 위원회와 전문도서관 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도서관 위원회는 도서관 업무의 합법성을 관리하고, 모니터, 분석, 평가하는 감독 기관인 반면, 전문도서관 위원회는 전문 업무의 모니터와 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2003년 NUK의 정부 예산은 5,773,156유로였으며, 자체 수입은 619,502유로인데 이중 171,112유로는 EU 프로젝트 금융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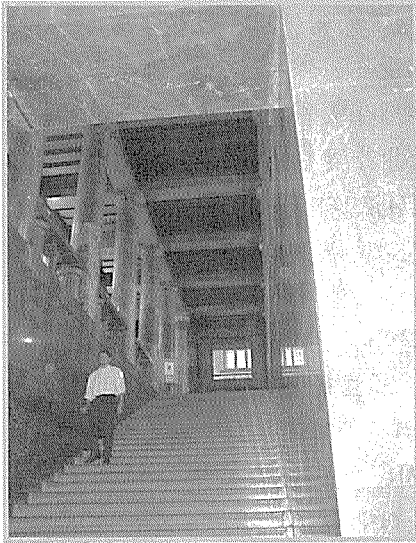
2003년 등록자료는 407,673건이며, 그 중 368,367건은 납본된 자료인데 대부분이 국가 기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반 상업 출판사의 납본율은 아주 낮다. 2000년말 총 장서는 2,385,621건이고, 마이크로 필름은 100,667롤을 보유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인물들의 초상을 디지털화 하였고, 1548년에서 1871년에 작성된 슬로베니아 지도의 약 50%를 디지털화 하였다.

NUK는 일반 자료에 대한 관외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3년 대출은 361,407권으로 그중 관내 대출은 146,423권, 관외 대출은 214,984권이였다. 또한 2002년부터는 온라인 예약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점차 그 이용자가 늘고 있다. 반면 참고 질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인터넷의 보급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사이트

- <http://www.nuk.uni-lj.si/vstop.cgi?jezik=slo>
- <http://www.nuk.uni-lj.si/vstop.cgi?jezik=eng>

해외도서관사정 ⑪



▲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 NUK 정면 사진



▲ 슬로베니아 주변 국가 지도